

## 제 13장 중국 공산주의에 저항하다: 빠진 (巴金) II

### ◆1교시 : 빠진(巴金) 4

#### ▲조선 독립운동가들과 아나키즘의 관계

빠진(巴金)은 중국식으로 읽으면 빠진인데 파김이라 읽어야 하는데, 모택통을 한국식한자어로 읽는 사람들이 파금巴金이라 읽죠. 크로포트킨의 -킨을 음역해서 쓰는데 크로포트킨으로 읽죠. 한국식 한자어는 파김이라 읽어야 하죠. 빠진(巴金)이 한국인 조선인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상해뿐 아니라 북경에서도 신채호 선생, 이회영같은 아나키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조선인의 경우 만주에서 활동했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웠죠.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했죠. 좌파든 우파든, 아나키스트들이든 조선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도 항일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나, 시기에 따라 다르죠. 어떤 시기는 퇴각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공산주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1920년대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나키즘인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 아나키즘에 대부분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아나키즘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만주지방의 조선인들 가운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항일 운동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지가 절체절명의 과제였죠.

이념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왜 아나키즘에 관심 갖게 되었나. 내가 처음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죠. 그 연구자의 경우 김좌진 장군이 한때 아나키스트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배우지 않은 것들,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배우면 충격이 있죠. 진짜 이런거였어? 톨스토이가 아나키스트였다는 것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거죠. 신채호가 아나키스트였나? 모르죠. 아나키즘 활동을 10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그 전의 민족과 관련된 것만 강조되죠. 빠진(巴金)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간디가 아나키스트였나?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비폭력 아나키스트라고 말했죠. 주장을 한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나중 활동을 보면 정통아나키즘 주장과는 다른 것이 많죠. 지배와 종속을 부정하는 것, 없애는 것을 가장 중요한 아나키즘의 원리로 본다면 현실적 제안, 시대적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 ▲김좌진의 ана키즘 경향

김좌진 장군도 민족주의자이죠. 신채호의 경우와 같이, 청산리 전투에서 300명의 군대가 몇 백명을 무찌르는 것들이 있죠. 그 사람이 활동하던 1920년대 만주는 ана키스트들이 몰려서 ана키스트들의 코뮌, 당시 상황에서는 살고 있던 사람들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힘을 모아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ана키스트 운동이 있었죠.

김종진의 경우 만주활동하던 조선인 ана키스트였고, 유림의 경우도 활동 근거지를 옮기다가 1920년 중후반의 경우 만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요. 이정규, 이을규 형제가 조선 ана키즘 운동사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인데, 이을규의 경우도 1920년 중후반에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주요 ана키스트운동을 일으켰던 삼인방이죠.

김종진, 이을규, 유림이 삼인방이죠. 재만무정부공산주의 동맹을 만들죠.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교육활동, 경제조직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조직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만주에서 ана키즘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할거냐는 공리를 하다보니까 활동가들이 조선인들의 일상적인 부분까지 항일 계몽을 해야할 필요를 느꼈죠.

세 명이 냈던 의견이 만주의 한족총연합회를 만들자. 만주 동포들이 항일사상, 계몽, 생활개혁을 하도록 만들자. 단순히 혁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발전, 영농발전의 개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개발, 총체적을 하는 단체를 만들죠.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던 단체들이 있었지만 한족총연합회가 큰 영향력을 줬다고 하고, 김좌진을 비롯한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같이 할 수 밖에 없죠. 이념에 기반한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 공동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었으니까.

아나키스트들이 만들고 나니 김좌진이 왜 ана키즘을 내세워야하나. 이념 자체는 동의하지만 ана키즘을 내세워야하는가에 망설이죠. 논쟁이 오가요. 삼인방과 김좌진과, 이을규의 경우 이론에 정통을 한 사람인데, 주장을 하는거죠.

아나키스트의 기본 원리가 너는 잘 모르지만 인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데 있다. 권위적인 조직이 아니라 풀뿌리 조직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면서 그런 이념이라면 나도 동의를 하겠다. 한족총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가세를 하면서 힘을 발휘하죠.

### ▲만주 한족총연합회 활동

1920년대 한인의 경우 총연합회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고 김좌진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을 다시 얻기 위해, 그 상황은 일본이 만주를 이동시키면 상황 1931년인데, ана키즘은 강력한 조직,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느슨한 자유연합체를 조직의 상으로 가지고 있죠.

항일운동을 중요시여기면서 공동체나 한 지역의 코뮌, 자체적인 결정을 내리면 움직이게 되는 모양새이므로 일본의 군대가 만주로 침략해 들어오고 있을 때 ана키스트들의 모임이었던 한족총연맹은 대항을 못하죠. 공산주의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왜 김좌진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피습을 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암살은 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필요하면 누구든 사용했고, 안중근의 경우도 이토오를 죽이고요, 빠진(巴金)의 경우도 조선인에 대한 환상이 20,30대까지 남아있었는데, 빠진(巴金)의 경우 조선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안중근의 히로부미의 암살이라고 말해요. 만주에서 ана키스트조직은 흩어지죠.

◆2교시 : 빠진(巴金) 5

▲1930년대 동아시아의 ана키즘 운동

1930년대가 시작되면 만주의 ана키스트 활동을 하던 것이 깨지고, 활동가들은 감옥에 가거나 조선에 송환된다. 유럽의 경우도 1930년 정도 만주에서 잡혀서 송환되는데, 감옥에 5년 동안 있게 되고, 이을규도 북경으로 가거나 흩어지죠.

아나키즘 운동은 1930년대가 되면 만주에서, 1920년대 중국을 보자면 각 지역에서 조선인들의 ана키스트운동을 벌이는 시기인데, 북경에서는 신채호의 경우 천고같은 출판물을 발행하면서 활동했었고, 상해, 광둥에서도 남화한 청년연맹, 한인 청년 연맹이 조직이 되어 있었죠.

만주, 남중국, 북경 이런 ана키스트들이 전체적인 연대체를 만들게 되는 때도 1920년대 말이에요. 중국의 ана키스트들이 하나의 힘을 모아 싸우자는 것이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이 만들어지죠. 제국주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국경을 넘어서 ана키스트들의 연대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운동의 과실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1920년 대 말이죠. 신채호의 동방무정부주의선언문을 보면 완전한 무정부주의자로서의 신채호선생을 볼 수 있는데, 베트남, 필리핀, 중국, 조선, 일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만, 동방무정부주의연맹을 만든 것이 1928년이었고, 싸우던 시기였죠.

빠진(巴金)의 경우 함께 했었고, 에스페란토로 이야기하면서 운동과 ана키즘 운동이 서로 넘나들던 시기도 1920년대를 통틀었다고 할 수 있죠. 에스페란토 활동을 한 사람은 ана키즘에 가까웠다고 보면 되구요. ана키스트들도 에스페란토를 가지고 이야기 했죠.

▲격동 이후 빠진(巴金)의 삶

빠진(巴金)의 경우 격동의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을 겪으면 문학적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항일 삼부작을 쓰게 되고, 소설을 통한 자신의 이상향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죠. 빠진(巴金)이 자신의 ана키즘을 버렸다고 했는데, 자신의 신념을 버렸다고 해서 사고방식, 생활태도가 바뀌지는 않죠. ана키스트적인 삶의 태도는 죽는 날까지 유지되었죠.

빠진(巴金)이 죽기 전 평생 무당파로 살았다, 하나의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ана키스트의 기본적 사고방식 중 하나죠. 정당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자신

의 뛰어난 권위가 되는 것이 되는 것, 그런 대접을 받아왔지만,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빠진(巴金) 문학상을 만들어 업적을 기리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 후배 문인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쓰고 싶다고 했죠.

유언도 남겼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아나키스트적 의미가 있는데, 자유를 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우파적인데, 자유주의자, 자유연대, 자유선진당, 남한은 자유가 없다는 선전을 했으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남한에 자유가 있다고 퍼트렸으니까. 남한은 우파 이데올로기로 되어 있죠.

남한의 맥락이 아니라 시각을 넓히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 사상보다도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상이죠. 1949 혁명 이후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반체제이다라고 중국에서는 정부 비판이라는 인식이라서 주장하기 힘들죠.

등소평 이후에 나아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빠진(巴金)만 유일하게 자유라는 것으로 바뀌서 얘기해도 중국 탄압을 받지 않았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평가를 빠진(巴金)에게 내리는 것은, 자기가 공식적으로 아나키즘의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이어져왔던 신념들이 죽는날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어요.

소설가로서의 작품, 다른 글들에 대한 분석이 기반된다면 설득력 있을텐데, 아나키스트로서 살았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그런 짐작이 가죠. 어두운 시절이었죠. 젊은 불꽃을 태우다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작가의 입장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30, 40대라고 본다면 빠진(巴金)에게는 빠져있죠.

40대에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하나의 정치적 이념으로 자기의 생각이 강요받던 시절이므로 제대로 된 창작활동을 하지 못했죠. 빠진(巴金)의 대표적 작품도 1930년 작품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문혁이후 자기가 겪었던 고초들을 조금의 자유가 생긴 정국상황에서 풀어나간거죠.

망명을 할 수 있는 곳이 대만 말고는 가능성이 없죠.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가는 곳이어서 빠진(巴金)의 경우 공산당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아나키스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둘 중 반대를 하라면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은 남한을 선택했겠지만, 중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대륙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중국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죠. 싱가포르런데 말고는,

#### ▲1930년대 이후 아나키즘 활동

남한의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상태에서 아나키스트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민족주의자로 출발해서 신념이 아나키즘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어요.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전면적인 항일전쟁의 시기가 1930년대 중반이후에 시작되는데, 중일전쟁 후 일본의 경우 미쳐서 발광하던 시기, 아나키즘의 자유연합같은 사상으로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인민전선을 통해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민족주의자들과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었죠. 항일반제민족해방이 당시의 조선인한테는 중요한 과제였으니까 해방이후 남한에 ана키스트들이 남게되죠. 유림의 경우 새롭게 열린 공간속에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힘을 모아야한다고 했고, 논쟁은 기록으로 남아 있죠.

우리는 정당정치 참여가 아니라 각 지역에 내려가 자유사회, 코문을 각 지역마다 건설해야한다, ана키스트들 대회를 1946년에 여는데, 유림이 나름대로 경험에 영향을 미쳤죠. 정당정치를 통한 실질적인 힘을 확보해서 기반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민족주의 세력에서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유림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때부터 각료의 높은 위치를 차지했고, 해방 후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죠.

독립노동당, 독립노동당이 아니죠.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독립된 세상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제헌의회가 만들어지는데 한 석도 못 얻죠. 한국전쟁 이후독립노동당이 없어지죠. 유림의 경우 1961년에 죽고 그 이후에 단주 유림의 사상을 이어받자는 것이 민족주의자 사이에서 일어나서 유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초기의 에스페란토를 하면서 1920년대까지 ана키스트 운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평가를 내리지 않고 항일민족운동해방차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죠.

유림의 경우도 독립투사, 독립의사로 소개되어졌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많은 ана키스트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ана키스트적인 레이다가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어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말이나 활동을 보면 나름대로의 공감에 되요.

◆3교시 : 빠진(巴金) 6

▲생활 속의 ана키즘 운동

빠진(巴金)의 삶에 대한 책은 한국에 나와 있어요. ‘혁명의 문학의 경계에 선 ана키스트 빠진(巴金)’에 보면 문학작품에 대한 ана키즘에 기반한 평가, 기존 중국학계에서 보지 못한 평가죠. ана키즘을 반동의 사상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사상에서 빠진(巴金)의 문학작품을 다른 시각에서 ана키즘에 입각한 책이죠.

1920 에스페란토티스트 ана키스트들, 예로센코 같은 경우 그런 특징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에스페란토 ана키즘, 평화, 박노자 예로센코의 소개글, 자기가 국경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어렸을 때 시력을 잃고나서 자기가 에스페란토도 공부하고 ана키즘도 공부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잡초처럼 산 사람인데, 그러면서 발전시킨 사상이어서 힘이 있는데요.

침소봉대를 하는 경우, 빠진(巴金)의 생전 101세를 살았는데, 20대, 30대에 ана키즘에 엄청난 투신했다고 해서 ана키즘 하나의 잣대로 투신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의 잣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ана키스트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라도 해야한다는 차원이죠.

아나키스트가 아니다하면 완전히 묻히는거죠. 신채호가 ана키스트가 아니라는 사람은 많아요. ана키스트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ана키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죠. 애기가 없다면,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의 ана키스트였다가 보다, 박열의 부인이었다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과 같죠.

이것은 ана키스트운동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듯 해요. ана키스트라는 이름을 건 운동은 별로 없죠. 지금의 경우예요. 내걸지 않았지만 특성을 보이는 것은 많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운동도 ана키즘에 기반한 운동이 있고, 발바리운동도 ана키즘에 기반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ана키즘 운동이죠.

병역거부, 반전평화운동도 그렇고, 직접행동을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려는 운동하는 사람들, 새만금 평택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지만, ана키스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이 있고, 이주노동자들, ана키즘에 기반한 사람들이 있죠.

그 지점에 고민이 많아요. ана키스트의 이름을 내거는게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강

의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ана키스트운동들이 거의 소멸하고 새로운 운동들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평가를 내리면서 이후 ана키스트 운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내려보죠.

#### ▲현대 ана키즘 운동에 대한 바람

아나키스트에 기반한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ана키즘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ана키즘 특성이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향점이 있다면 여러 운동들이 더 잘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ана키즘을 내세운 운동들이 자라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죠.

개인적으로 자신을 ана키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그 운동이 벌어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힘을 모아가는 것은 아니죠. ана키즘 입장에서는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거대한 물이 되어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아쉬운 측면이 있죠.

대부분 모든 ана키스트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해야 할 분야가 많다. 국제 연대, 한국에서는 국경안에 가로막혀 있다. 조금만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있느냐고 하죠. 국경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안에서만 갇혀 지내겠죠. 티베트의 문제, 미얀마의 문제, 쿠르드의 문제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죠. ана키스트에 관한 고전, 같이 읽으면 좋은 책들, 한권, 한권, 가네코 후미코의 책, 빠진(巴金)의 책, 이런 것들이 한국어로 나올 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소개하거나 알리는 작업들도 필요하죠.

문화운동, 음악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할 것이 많죠. 생태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예전 사람들이 살던 형태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ана키즘에 기반했지만 한국에서는 맥락이 소개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메이데이, 1999년 시애틀에 반세기 운동 등이 ана키즘에 기반한 운동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채, 단순한 반세계운동,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야 하죠.